



주후 2023.12.24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성탄축하예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2024년 오늘 성탄축하예배는 프랑스 수도공동체인 <떼제공동체> 예배형식을 따라 예배합니다. 간소하고 소박한 예배형식과 설교 대신 말씀의 낭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모든 찬양은 선창 후에 온 성도가 함께 부른 후 다같이 한번 더 부릅니다

예배인도: 이길주 목사 / 찬양선창: 전정민 전도사

| 찬송 |

기원..... 인도자

찬양..... <우리는 예수를>..... 다같이



찬양..... <하늘에는 영광이요>..... 다같이



찬양..... <찬미를 받으소서>..... 다같이



침묵기도 <죄용서와 정결을 소망하는 기도> **다같이**

조용히 침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를 점검하고
회개的时间으로 나아갑시다

찬양 <주여 주 예수여> **다같이**



| 말씀 |

성탄의 말씀 <마3:1-2, 11-12> **인도자**

1-2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11-12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응답의찬양 <우리는 예수를> **다같이**



성탄의 말씀2 <마13:44-50/ 마18:23-35> 인도자

44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45-46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 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47-50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가로 끌어다가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통에 담고 먹지 못할 것은 버린다. 역사에 막이 내릴 때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추려 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엄청난 불평이 있겠지만, 전혀 소용없을 것이다.”

23-25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십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러 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26-27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 주었다. 28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십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목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닦달했다. 29-31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알이 아뢰었다. 32-35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네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응답의찬양 <우리는 예수를> 다같이

Em D G D EmC Am B , Em D G D EmC A6 B Em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 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 니다

성탄의 말씀3.....〈롬 2:18-24/ 롬6:1-4/ 롬8:26-28/ 약2:14-17〉..... 인도자

18-24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꿰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 다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 줄 수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경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정색하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감쪽같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 온갖 유창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듯이 말입니다.

1-4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 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26-28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14-17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짓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응답의찬양..... **〈우리는 예수를〉**..... **다같이**



성탄의 말씀4..... **〈벧전 1:13-16/ 벧전 3:8-10/ 계22:14-17〉**..... **인도자**

13-16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어진 생활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10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앙갚음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15 자기 옷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생명나무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대문을 통해 그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뚱개들, 곧 마술사, 간음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바깥으로 내쳐질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17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듣는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화답하십시오.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시십시오. 생명수를 거저 마시 십시오!

응답의찬양..... <우리는 예수를>..... 다같이



말씀묵상..... 다같이

| 주의만찬 |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떡과 잔을 나눔..... 다같이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다같이



| 감사와 응답 |

가야금,해금특주.....〈천사 찬송하기를〉..... 김고은·이건명 집사

공동체기도.....〈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다같이

이땅의 황무함과 죄악이 관영함과 회개치 않는 세상을 위해
주님앞에 중보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주여 비오니〉..... 다같이

♩ = 72 Em D C6 D G C Am6 B G Am B Em Fine

주 여비오니 들 어주소서 우리 의 기도 를 주 응 답해주소 서 주

선포..... 이길주 목사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₃ F

사랑의나눔 있는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 다
2번 다같이 함께 부릅니다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말씀묵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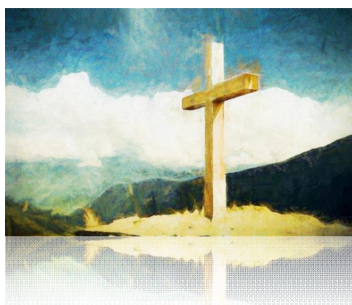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송구영신예배

12월31일 송구영신예배 모임때 선물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1만원 이하의 선물을 포장해 준비해오시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될것입니다 ^^

송구영신예배 일정

12월31일 - 오전11시-12시30분: 주일예배 (식사 및 커피토크 없습니다)

12월31일 - 오후9시-11시: 송구영신 모임 / 오후11시-새벽12:30: 송구영신 예배

신년 성경통독 (40일 신약성경통독)

신년 성경통독을 <갓피플성경앱>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밴드에 갓 피플 성경통독 설치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 1월1일부터 진행되는 길목 교회 온교인 성경통독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식사 섬김

오늘 식사 섬김은 이건명-김고은 집사님 가정에서 신청해주셨습니다. 가정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길 소망하며 그 기쁨들이 길목교회 공동체안에서 계속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

* 감사한 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4주 식사섬김 신청받습니다.

1주 - 도시락/ 2주 - 라면/ 3주-밀키트/ 4주-성도참여/ 5주-랜덤

* 1월 식사 섬김 - 이춘원,정지혜 집사님 가정

주차 앱 사용

길목교회에 오실때 주차 할인을 위해 iParking 멤버스 앱을 설치해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력

예쁜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모두 한 부씩 챙겨가세요 ^^ 더 필요하신 분은 한 부씩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